

光州日邦

SINCE 1952



인수위 국정과제 반영 여부 5년 지역발전 좌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정 과제와 지역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110여 개의 국 정과제와 580여 개의 실천 과제에 대해 선별 작업 에 나서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미래 프로 젝트와 현안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 서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실천과제 포함 여부가 5년간 지역 발전은 물론 이후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6일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조성 등 지 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광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개 브랜드 완성차 공장을 보유한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도시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의 최적지"라며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사업과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부산과 광주를 각각 2시간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

광주시·전남도 주요 프로젝트·현안 들고 총력전 나서 문영훈 광주시장 대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도시 조성 등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 윤석열 당선인 면담 지역균형발전 강조

로 신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5· 18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문 권한대행은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또는 검토 기간 대폭 단축 등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권한대행은 7일까지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도심 군 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 건 립, 민주 인권기념 파크 조성과 연계한 5·18 국제 자유민주인권 연구원 설립 등 당선인 공약의 국정 과제 반영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남 발전을 위한 8대 공약 25개 과제, 우선 추진이 시급한 13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추진할 지역핵심현안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설립 ▲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국가 불균형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자, 인구 감소 및 지역 쇠락이 심각한 전남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남의 발전이 더딘 만큼 윤 당선인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제적이며 공격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드론 기업 유치 및 특별자유구역 지정, 전라선 고속철도(익 산~여수)와 광주~전남 고속도로(광주~장성~담양 ~화순~나주순환고속망) 등의 광역 고속교통망 확 충도 건의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전남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영암 아우토반 고속도로 등에 대한 투자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항 세계적인 친환경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 공항 육성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전남형푸드바이오 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 벨트 조성 등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여기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 필요성과 반도체공장 광주·전남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전남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COP) 33차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그린수소 에너지점 조성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 ▲서울~제주고속철도 건설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전남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전남의 지역 현안에 대해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크라 출신 고려인 동포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모색 이광재 국회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의원은 6일 "오는 $8\sim10$ 일 폴란드 현지를 방문해 우 그라이나 난민 상황을 파악하고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을 피해 폴란드에만 1000명, 그 외 주변 국가에 1000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피신해 있다"며 "고려인 약 1000명이 계시는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해서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폴란드 현지 방문에 '우크라이나와 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를 맡은 민주당 이용빈(광산갑) 의원이 동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의원은 의사이기도 하고 광주에는 고려인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해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문 기간 이 위원장과 이 의원은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현지 고려인 단체와 비정부기구 (NGO)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군 전용기와 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 해다.

또 "피난 온 고려인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여권이 없는 분들도 많다"면서 "지난번 아프가니 스탄 사태와 같이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군 전용기를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의약품 등 인도적 구호 물품 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2면

아파트 매물 넘치는데 청년들 집은 어디에… ▶6면

흙·불·인간의 혼이 빚어낸 분청사기



'신문의 날' 휴무 … 내일 신문 쉽니다



'물가 안정' 새 정부 최우선 과제 된다

10년 만에 4% 치솟아 '초비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물가를 포함한 민 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 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은 윤 당선인에게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웃돈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 하면서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 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했다.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비용 상승 하나 때문이 아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물가 상승 압박이 매우 심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나려 해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더해져 공급망 문제로 비용 측

면의 물가상승 압박이 강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간사들은 "(물가 상승 원인이) 종합 적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딱 '이것'이라고 간단히 말하 기는 어렵다"는 보고도 했다고 원 수석부대변인은 바려다

인수위는 또 "물가동향을 포함한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한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에글 것을 국구했다고 말했다. -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유류세 30% 인 하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5일 5~7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 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현 정부에 촉구할 일이 있는데 취임 전에는 현 정부에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라 며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을 해당 분과에서 최우선과제로 준 비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하반기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원 수석부대변인은 "공공요 금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서민물가 문제가 있기에 전기요금, 가스요

이어 "서민물가 문제가 있기에 전기요금, 가스요 금, 통행료 부분을 꽉 눌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수완 딜러십 Grand Open!

신차, 인증중고차 전시장 그리고 서비스센터까지 One Stop 고객 만족 서비스!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